목포시, 항구포차 개장 준비 한창

삼학도에 15명 민간운영자 선정…오는 12일 개장

친절 · 청결 서비스 제공 "최고 명물 포차 만들 것"

오는 12일 목포 삼학도에 아름다운 항구의 낭만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목포 항구포차'가 개장한다.

목포시는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맛의 도시에 걸맞는 특별한 맛과 추억을 만끽 할 수 있도록 삼학도 구)해경부두에 조성하는 항구포차가 12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를 추억하고 항구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관광 포차거리가 필요하다는 시민 요구에서 시작된 '목포 항구포차'는 장소 · 점포형태 선정 및 운영 · 관리 방안 등 모든 면에서 민 · 관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시는 포차 이름 선정에서 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각별히 신경썼다. 목포의 정체성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명칭으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목포 항구포차'로 결정했다.

운영자 선정도 엄격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모두 마쳤다. 지난 3월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자 접수를 받아 1차 서류평가와 2차 음식품평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5명의 민간운영자를 선정했다.

현재 포차 운영자들은 친절교육, 위생교육, 메뉴 개발 등 포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한창인데 의욕이 대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맛의 도시 목포에 걸맞는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 · 청결 서비스 제공으로 항구포차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물 포차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포차에서 판매할 음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낙지, 민어, 홍어 삼합은 물론 미나리 삼겹살 구이, 닭발 해물삼합, 낙지라면 등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직장인, 남녀노소 누구나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6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

영업장 준비도 마무리 되고 있다. 영업 공간은 미관과 안전을 고려해 통일된 색 · 형태의 컨테이너 부스로 결정됐다.

시에서는 상하수도와 전기 ·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포차 운영자는 컨테이너와 포차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부담한다.

컨테이너 제작은 낭만항구 목포의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규격과 디자인을 시에서 제시하고 운영자는 이에 맞춰 운영자 협의회를 통해 제작회사를 선정하고 내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시와 운영자들은 음식 못지않게 즐길거리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타 지자체 분석 결과 젊은층을 공략한 공연처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이 된 점에 착안해 '목포 항구버스킹' 공연을 매주 금 · 토요일 2회 진행하고, 다양한 이벤트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목포 항구포차는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19：00 ~ 익일 02：00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17：00 ~ 24：00까지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항구포차 개장으로 맛의 도시 목포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늘어났다. 항구포차에서 유달산과 항구를 배경으로 목포의 맛과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란다."며 "특히, 목포는 고하도, 유달산,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 여행을 하기 딱 좋은 곳이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목포에서 힐링하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목포시, 소비침체 수산물 구입으로 상생 행정 펼쳐

저렴한 가격 · 질 좋은 제품 구입 · 어민 소득증대 일석이조

목포시가 소비 침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 진행한 수산물 판촉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시는 목포수협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매주 1회(총 4회) 목포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 행사를 열었다.

시중가 대비 최고 5~20% 할인 가격에 다양하고 알찬 구성으로 굴비, 반건조 생선 등 9종을 판매해 직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수산물 판매 행사를 통해 직원들은 좋은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어민들은 상당한 판매고를 올리면서 민관 상생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수산물을 구입한 시청 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에게 가정을 달을 맞아 선물하기 참 좋았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해 주신 어민들에게 감사드린다. 가족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어민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였다"고 흐뭇해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소비침체로 인해 고생해 잡은 물건이 판매되지 않아 낙담했던 어민들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또, 생업에 다시 한 번 힘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무안군, 오룡지구 입주대비 행정지원 대책 추진

일로읍 오룡리 신설 · 현장민원실 운영 추진

무안군은 일로 오룡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오는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일로읍 망월리인 오룡지구에 법정리인 오룡리와 9개의 행정리를 신설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행정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며, 관련 조례는 6월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전입신고와 관련 서류 발급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일로읍사무소에 민원업무 관련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 · 민원 서비스 안내도를 제작하여 입주민들의 편리한 입주와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김 산 군수는 "오룡지구의 원활한 정착과 함께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오룡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도시민 영광체험 통한 귀농귀촌 희망찾기

영광군, 서울 · 경기 23명 대상 1박2일 현장체험 교육

영광군은 지난 5월 28일부터 1박 2일간 도시지역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광에서 귀농귀촌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귀농산어촌 현장체험'은 전남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와 영광군의 주관으로 서울, 경기도 지역 도시민 중 23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역 물색과 귀농귀촌 성공 노하우를 듣고자 추진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영광군의 선배 귀농귀촌인 농장을 방문하여 영농정착 현장을 탐방하고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봄으로서 귀농귀촌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영광군 지역소개 및 귀농귀촌 관련 지원정책 안내와 묘량면의 농촌사회복지공동체 여민동락 권혁범 센터장의 시골 정착과정 특강을 통해 귀농귀촌 인생의 밑그림을 영광에 그릴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현장체험 교육 참가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손님이 조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오랜만에 만난 식구처럼 반갑게 반겨주는 선배 귀농인과 영광군 관계자들에게 따듯함을 느끼고 제2의 인생을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귀농산어촌 현장체험 교육은 영광군에서 정착한 선배 귀농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어 큰 의미가 있었고 도시민들의 최종 종착지로 영광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행안부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 선정

'함평천지, 나비가 날다'…공용터미널~농협 함평군지부 350m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함평천지, 나비가 날다'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5월29일 밝혔다.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과 휴 · 폐업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공모 접수했다. 올해는 장기화 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전국 10개 상권을 선정하고 개소당 4억 원씩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함평군은 읍 공용터미널에서 농협 함평군지부에 이르는 약 350m 구간의 중앙길 골목상권을 신청, 이번에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올 하반기부터 국비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상구간 내 상가 외부 경관을 지역대표 이미지인 나비를 테마로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앙길 골목상권이 또 하나의 지역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참여한 골목경제 공동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